

청소년 존중 | 청소년 행복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2022. 10. 29.(토)





#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 고양시청소년의회란?

- ▶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 ▶ 의정위크숍, 의정활동(정책제안, 정책심의 등), 의정활동 보고회, 국회체험, 본회의 등 개최.
- ▶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고양시 · 의회에 제안하는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

## 추진근거

### 1)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 대한 국제기구(UN, ICNYP)의 권고

UNA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 2)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1)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 · 협의 ·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 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고양시 조례 제 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고양시청소년재단 비전 및 전략

[ 청소년 참여와 권리증진 ]

1-1.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

1-1-1. 지역에서의 정책참여 활성화

# 고양시청소년의회 발자취

##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인원

연도	의회	최초 활동인원	담당부서	비고
2017년	1대	29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2018년	2대	24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2019년-2020년	3대	26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사무국	
2021년	4대	22명	마두청소년수련관	
2022년	5대	24명	마두청소년수련관	

## 역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제안정책 우수사례

연도	의회	정책제안 내용	비고
2018년	2대	2018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제1회 청소년정책주장 대회' '대상' 수상 -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언	여성가족부 주최
2018년	2대	고양시 미혼모, 미혼부 지원 조례안	
2020년	3대	청소년 조연자판기 '마음선물' 제안	2020년부터 화정청소년 자유공간에 설치운영 중
2021년	4대	고양시 환경축제 제안	고양시 환경정책 의견 적극 수렴



## 2022

- 3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4명)
- 5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 7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국회의원사당 견학
- 9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고양시의원 토크콘서트
- 10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2021

- 2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청소년의원 27명)
- 8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
- 10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및 시의원 간담회 개최
- 11월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개최

## 2020

- 2~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 10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2회차)
- 11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개최

## 2019

- 4월 타 시도(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청소년의회 벤치마킹
- 6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선출(청소년의원 26명)
- 8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워크숍(1회차)
- 12월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보고회

## 2018

- 3월 제2회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27명)
- 5월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7월 경기도 성남시 & 경상남도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원교류
- 8월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 교육
- 9월 제2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2017

- 1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고양시조례 제1834호 / 2017.1.13.)
- 7월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청소년의원 30명)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개원
- 8월 국회체험
- 9월 제1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
- 12월 제1회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평가회 개최

## 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명단						
구분	이름	성별	학교	거주지	상임위원회	비고
1	고경림	여	원당중학교	덕양구	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
2	김재현	남	송산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	김태현	남	발산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4	임성민	남	백신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5	조건호	남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6	홍원준	남	대송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7	김민제	남	장성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8	김보민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	김승현	남	가좌초등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0	노하영	여	백마고등학교	일산동구	교육상임위원회	
11	윤채연	여	한수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2	이유나	여	대진고등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3	이지원	여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4	정윤정	여	덕이중학교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15	김수빈	여	일산동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
16	김지윤	여	안곡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7	성정윤	남	일산동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18	신지원	여	고양중학교	덕양구	문화상임위원회	
19	유정은	여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의장
20	임연우	여	일산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21	정예원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22	정재욱	남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23	강래원	여	도래울고등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위원장
24	김다은	여	일산동중학교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5	김종원	남	고양국제고등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26	김희원	여	저동중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27	남지인	여	학교밖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28	문서영	여	학교밖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29	박기병	남	화수고등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의장
30	한소원	여	정발고등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 멘토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상임위원회
1	이현승	남	안전상임위원회
2	하경은	여	안전상임위원회
3	정택유	남	문화상임위원회
4	엄익호	남	문화상임위원회
5	진재영	여	인권상임위원회
6	김자현	여	교육상임위원회

## 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 교육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 문화상임위원회

정치인과 청소년의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하는 토크(TalkTalk)'

### 안전상임위원회

바닥신호등 설치

## 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명단						
구분	이름	성별	학교	거주지	상임위원회	비고
1	조연수	여	오마초등학교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2	김태림	여	정발중학교	덕양구	안전상임위원회	
3	정예원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4	최지호	남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
5	김민제	남	장성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6	조해성	남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7	반규리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8	김보민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	이윤서	여	고양중학교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10	정윤정	여	덕이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11	장성현	남	성사중학교	덕양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2	이아륜	남	발산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3	김지원	여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위원장
14	손정민	남	성사중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5	이정환	남	서정중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16	김가빈	여	고양국제고등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17	김수빈	여	봉일천고등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
18	김규영	남	서정고등학교	덕양구	문화상임위원회	
19	류주영	여	풍동고등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20	문서영	여	화정고등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21	이다은	여	화정고등학교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22	주형석	남	능곡고등학교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23	노하영	여	백마고등학교	일산동구	-	의장
24	하승민	여	한민고등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25	강유수	여	덕이고등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부의장
26	김은수	여	성사고등학교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 멘토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상임위원회
1	한송이	여	운영상임위원회
2	박민우	남	안전상임위원회
3	이혜원	여	문화상임위원회
4	방재현	남	인권상임위원회
5	박현우	남	교육상임위원회

## 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 교육상임위원회

청소년 성평등 인식 증진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카페 증설

### 안전상임위원회

공용 자전거 활성화

학교 옥상 관련 규정 제정

### 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명단						
구분	이름	성별	학교	거주지	상임위원회	비고
1	금민지	여	오마초등학교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2	김민재	남	저동고등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3	김민제	남	장성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4	김민채	여	신일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5	김상규	남	장성중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6	김수빈	여	일산동고등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의장
7	김예지	여	지도중학교	덕양구	안전상임위원회	
8	김지우	남	호곡중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9	김지우	남	풍산중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0	김재윤	남	호곡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1	김찬영	남	풍산중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12	류주영	여	풍동고등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3	박정원	남	동산고등학교	덕양구	문화상임위원회	의장
14	오태연	남	백신고등학교	일산동구	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
15	위정연	여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인권상임위원회	
16	이솔민	남	화수고등학교	덕양구	인권상임위원회	위원장
17	이윤성	남	풍동중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
18	조연수	여	오마중학교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19	장예원	여	한수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20	정예원	여	안곡중학교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21	조해성	남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2	주하린	여	한수중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23	여세현	남	일산동고등학교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4	윤소희	여	덕이중학교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25	최보근	남	저동고등학교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26	황은미	여	양일중학교	일산동구	교육상임위원회	

## 멘토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상임위원회
1	박기병	남	교육,문화상임위원회
2	정유정	여	인권상임위원회
3	정민구	남	안전상임위원회

## 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 교육상임위원회

과학실험 관련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활성화

### 인권상임위원회

고양시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 문화상임위원회

청소년 독서문화 증진 방안

### 안전상임위원회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명단						
구분	이름	성별	학교	거주지	상임위원회	비고
1	김경민	남	동패고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2	김경환	남	덕이고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3	김민재	남	저동고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위원장
4	김민제	남	청심국제고	일산서구	-	의장
5	김재운	남	동패고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부위원장
6	김지연	여	백마고	일산동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7	박채아	여	신일중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부위원장
8	박채웅	남	동패고	일산서구	문화상임위원회	
9	백준석	남	중산고	일산동구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신유지	여	일산동고	일산서구	안전상임위원회	
11	염지원	여	일산대진고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2	장민수	남	화수고	덕양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3	장예원	여	한수중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4	조은재	여	대송중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15	조해원	여	성사중	덕양구	문화상임위원회	부위원장
16	주하린	여	한수중	일산서구	교육상임위원회	
17	차인수	남	화수고	덕양구	안전상임위원회	위원장
18	최보근	남	저동고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부의장
19	최정빈	여	대송중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20	최지안	여	대송중	일산서구	인권상임위원회	



## 멘토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상임위원회
1	박정원	남	문화,인권,교육상임위원회
2	최재혁	남	안전상임위원회

## 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

### 교육상임위원회

저소득 및 차상위 청소년을 위한 '고양 북페이' 확대·보완 요청

### 인권상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 문화상임위원회

환경인식 개선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 - 환경축제-

### 안전상임위원회

청소년 연령대별 학교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Contents

---

1	축사 및 인사말	16
2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소개	24
3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안내	25
4	고양시청소년의회 조례 개정(안)	26
5	제5대 고양시 청소년 정책제안서	31
6	참고자료	63

『  
고양시청소년의회  
축사 및 인사말  
』

# 고양특례시 시장 축사

---

## 고양시청소년의회는 18만 명의 고양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우리 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확장시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회의는 청소년 여러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고 높게 전해질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청소년 의원 여러분이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고양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생활로 바쁘겠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도 여러분이 제안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청소년 여러분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고양특례시장 이 동 환

#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축사

청소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입니다.

오늘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청소년 여러분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17년 1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었고, 미래의 주역인 여기계신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청소년들의 권리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는 주어지고 있는지, 소외받는 곳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청소년의원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의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소중한 의견을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청소년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고양시 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 영 식

#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축사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을 지낸 후기청소년  
박기병입니다.

먼저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음에도 오늘, 제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간 청소년의원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굴해낸 정책제안 이 다양한 창구를 거쳐 고양시정과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는 2017년 제1대 의회를 시작으로, 약 백여 명의 청소년의원님들을 거치며 고양시 내 청소년 정책 의제 발굴의 공식적인 자치기구로서 기능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단순히 모의의회나 체험활동의 의미를 뛰어넘어, 청소년 시민이 지역사회 속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고양시 18만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창구로서 그 의미가 지속·확장되길 기원합니다.

청소년의원 여러분, “참여는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을 계발하고 배양한다. 참여할수록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참여하고 실현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창구로의 의미 또한 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양시 청소년의회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고양시 지역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난 6년간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참여와 배움, 성장의 과정을 거친 전, 후기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 속 구성원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의회 안에서 나의 이야기와 청소년 누군가의 이야기가 만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 또한 한 명의 청소년으로서,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발전과 청소년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함께 노력해주시는 담당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과 청소년의회 멘토님들, 관계부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위원, 박기병 드림.

2022년 10월 29일 제1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박 기 병

#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김민제입니다.

제5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전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출범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운영규칙 제정부터 국회견학, 뉴미디어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은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심화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4대 의장으로서 뿌듯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모여 고양시 청소년의 권익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정책이 발굴되고 그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이 가득 찬 고양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제5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고양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제4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민제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인사말

##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시장님,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청,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8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장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제 5대 고양시 청소년의회가 1년간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고양시의 정책에 남긴 족적들이 드디어 종착지에 다다른 순간입니다. 이 뜻깊은 날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결실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번 의회는 다행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체기와 함께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보다 더 이번 팬데믹 상황에 힘들었을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께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여러분께 닿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 협업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했고, 다양한 사정들과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로 회의에 참여가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양시와 고양시 내의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 이 목표 하나만을 보고 의지와 투지를 불태워 끝까지 노력해주셨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시장님, 시의장님, 저희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귀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부족한 점은 비판해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해주시며 저희의 정책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발의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며, 결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은 여전히 실내 활동이 전부이고, 장기화된 온라인 클래스로 학습공백이 생긴 학생들이 대거 속출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모두 이전만큼의 자유성과 편안함을 잃어 학습 장소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 사태는 청소년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심리적으로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상담소 등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삶이, 그리고 고양 시민의 삶이 점차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청소년과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이 정말 미비합니다. 고양 시민의 코로나 블루 극복,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보장, 청소년의 망가져버린 학업 보장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청,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의회 활동에 제약이 생겼음에도 그것을 딛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 산물입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청소년 정책의 부족으로 고통 받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되고 의결되는 정책들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소년의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소년의회 의장으로서 부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모든 안건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청소년 의회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이, 학업에 지장을 미치거나 시간을 뺏는다는 좋지 않은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인원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의회도 1대 의회 개회 이후로 5번의 의회동안 31명 정원을 채워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더 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저희 의회 같은 단체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인식을 재고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장 김가영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김 가 영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인사말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분들을 포함한  
18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조해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 몇 개월간 의원님들과 멘토님들이 수고하여 만든 정책이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이번 5대 의회에서는 지난 3,4대 의회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조금은 진정되어 국회의사당 견학을  
포함한 많은 대면활동이 가능해져서 의원님들이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활동을 경험한 만큼 이번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간의 친목이나 위원회의 분위기가 한층 성장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몇몇 의원님들을 제명하거나 부의장 자리가 완전  
하지 못했었지만 저는 이 또한 우리 5대 의회가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힘한 길을 가지 않고서 성장한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쉽게 무너지기 쉽다고 합니다.  
반면 험한 길을 가고 이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면 단단히 버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비록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어 오늘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몇 개월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모든 안건들이 청소년  
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양시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많은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홍보와 많은 관심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분들을 포함한 18만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멘토님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조승일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분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시 청소년 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조 해 원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정활동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2022년 주요 의정 활동

- 개원식 1회(3월)
- 정책워크숍 1회(5월)
- 국회의원당 견학 1회(7월)
- 시의원 토크콘서트 1회(9월)
- 의정보고회 1회(11월)
-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 1회(4월)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의 10회(연중)
-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1회(9월)
- 본회의 1회(10월)
- 평가 및 폐회 1회(12월)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소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학력	학년	지역	상임위	비고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									
1	권시우	2008.01.03.	남	백신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화	
2	김가영	2005.08.12.	여	저현고	고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인권	의장
3	박성우	2009.05.07.	남	오마중	중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안전	부위원장
4	박소울	2008.10.12.	여	백신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화	위원장
5	박지수	2006.09.19	남	백석고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교육	
6	박채야	2008.07.21.	여	신일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안전	위원장
7	박태율	2009.01.30.	남	호곡중	중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권	
8	신유정	2006.10.02.	여	고양국제고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전	
9	안민서	2007.06.23.	여	고양자유학교	중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권	위원장
10	양규리	2009.04.11.	여	호곡중	중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문화	
11	이기윤	2006.11.14.	남	능곡고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교육	위원장
12	이승욱	2008.10.29.	남	발산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교육	
13	이예령	2008.09.19.	여	정발중	중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안전	간사
14	이예원	2006.01.31.	여	덕이고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문화	부위원장
15	이지민	2009.08.27.	남	목암중	중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전	
16	임도연	2008.02.09.	여	백신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화	부위원장
17	정하윤	2007.06.08.	여	도래울중	중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교육	
18	조해원	2008.08.13.	여	성사중	중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교육	부위원장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멘토									
1	강승현	1998.05.28.	남	항공대	대	-	-	안전	멘토
2	김민재	2003.07.25.	남	인하대	대	-	-	문화	멘토
3	박정원	2002.07.01.	남	경희대	대	-	-	운영	멘토
4	최재혁	2002.10.30.	남	인하대	대	-	-	인권	멘토
5	황현선	1997.03.11.	남	연세대	대	-	-	교육	멘토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구분	내용	비고
09:30~10:00	- 출석체크, 일정안내, 세팅 및 준비	담당자
10:00~10:30	- 본회의 리허설	담당자
10:30~10:35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최재혁 국장
10:35~10:40	- 격려사 및 축사	내외빈
10:40~10:45	- 활동 경과보고	김민재 사무처장
10:45~10:50	- 의원선서 및 인사말	김가영 의장
10:50~10:55	- 본회의 개의 · 의회국장 보고 · 의사일정 안내 · 1~4대 정책보고	최재혁 국장 김가영 의장 조해원 부의장
10:55~12:05	- 정책제안발표 ① 운영상임위원회 1건 (10분) ② 교육상임위원회 1건 (10분) ③ 문화상임위원회 1건 (10분) ④ 인권상임위원회 1건 (10분) ⑤ 안전상임위원회 2건 (20분) - 정책투표	청소년의회 의원
12:05~12:30	- 5분 자유발언 ① 박채야, 이예령(5분) ② 이예원(5분)	
12:30~12:40	- 마무리발언, 산회선언, 단체사진	김가영 의장
12:40~	- 정리 및 점심식사	담당자

『  
고양시청소년의회  
조례 개정(안)  
』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조항

제2조 (정의) 2항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 변경(안)

**모의의회** 삭제

### 사유

청소년 주도적인 정책 제안의 기회 보장

현행	개정
<p><b>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p> <p>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p>	<p><b>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p> <p>2. “고양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의회를 말한다.</p>

### 조항

제4조 (구성) 의원의 수는 31명으로 한다.

### 변경(안)

의원의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 사유

현실적으로 참여 청소년 모집이 어려움

현행	개정
제4조(구성) ② 의원의 수는 31명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② 의원의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 조항

제5조 1항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변경(안)

선발면접 방식 병행

## 사유

청소년 참여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원활한 모집을 위해서 선출방식과 면접방식을 병행 함

현행	개정
<b>제5조(선출방법)</b>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b>제5조(선출방법)</b>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하며,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선발 면접을 병행할 수 있다.

## 조항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1항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변경(안)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수정. 사퇴 조항 추가

## 사유

청소년 의회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활동이 요구 됨  
청소년 의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	개정
<b>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b>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b>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b>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사퇴를 권고받은 경우



## 조항

제8조(상임위원회) 2항 문화위원회 8명 이내

## 변경(안)

2항 4호 문화위원회 8명 이내를 환경문화위원회 8명 이내로 추가 수정

## 사유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환경 분야 활동 기회를 마련 함

현행	개정
<b>제8조(상임위원회)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b>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안전위원회 8명 이내 3. 교육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위원회 8명 이내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b>제8조(상임위원회)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b>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안전위원회 8명 이내 3. 교육위원회 8명 이내 4. 환경문화위원회 8명 이내 5. 인권위원회 8명 이내

## 조항

제9조(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 변경(안)

청소년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조항 수정

## 사유

유연한 청소년 의회 일정 운영

현행	개정
<b>제9조(회의)</b> ①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동안 연 2회 개최 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b>제9조(회의)</b> ① 청소년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조항

제11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증, 의원배지,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회 등 견학비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변경(안)

시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조항 수정

## 사유

청소년 주도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청소년 의회 운영을 지원 함

현행	개정
<b>제11조(지원)</b>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제11조(지원)</b>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고양시청소년 정책제안

제안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문화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제안
인권	고양특례시 내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
교육	고양특례시 청소년 법·경제 축제 지원 및 개최에 관한 제안
안전	고양특례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제안
안전	고양특례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안 (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

##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문화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정책제안분야	문화
제안내용 요약	-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 - 스트레스 프리존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 및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 청소년 스트레스, 이대로 괜찮은가? : 청소년에게는 '마음의 쉼터'가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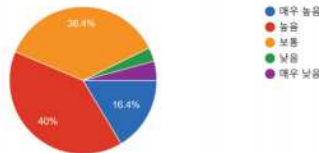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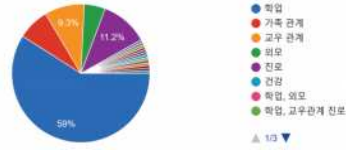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현황은 어떨까?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문화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4%의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높음' 수준으로 받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과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응답 165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61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으로는 59%의 압도적인 비율로 '학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외모' 순이었다. 수많은 매체에서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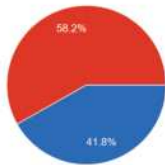
특히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럽 연합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낸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0명 중 5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꼈으며, 한국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에 속하는 현황이다.

즉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은 여전히 '지금'보다는 불분명한 '미래'의 행복을 상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다양한 방면에서의 압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현재 삶을 보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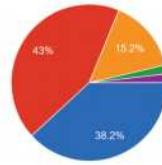
그렇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공간이 얼마나 존재할까? 조사 결과 운동장을 제외하면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마저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체육 시간이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65개



● 예  
● 아니오

학교에 스트레스 프리존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165개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이렇듯 '학업'과 더불어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학업 몰두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약 82%의 청소년들이 학교 및 공공시설 내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공간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상임위원회는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라는 주제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은 현재 여러 타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서울시 소재 6개 학교(서울창신초등학교, 성내중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의 유휴 교실(약 193m<sup>2</sup>, 교실 2.5개 크기)을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 조성 완료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프리존 체험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약 27.5%, 우울 척도가 약 27.3% 감소하였다는 결과(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이에 문화상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매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및 공공시설 내에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이곳에서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다.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학교 및 공공시설 내에 이러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함으로써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후에 잠시나마 학업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제안 정책의 목적이 있다.

## ▷ 설치 장소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은 기본적으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학교 및 공공시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유휴공간을 개조해 설치하거나 학교 내에 기존에 존재하던 Wee클래스를 확장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고,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미림여자고등학교



△ 창신초등학교



△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스트레스 프리존의 모습이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 ▷ 스트레스 프리존 내부(프로그램) 관련 구성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의 내부 프로그램 구성에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된다. 문화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구성들을 예시로 제안한다.

### ① 편안한 휴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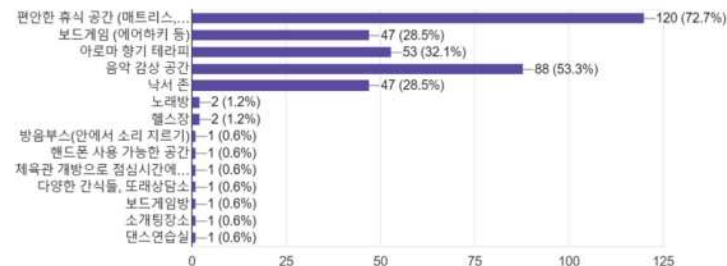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일시적으로 낮추도록 할 수 있다. 학교 내에 보건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휴식 공간을 '스트레스 프리존'에 조성하여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먹이나 빈백과 같은 소품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② 음악 감상 공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던 '음악 감상'에서 차안한 구성이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음악 감상 이외에도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스트레스 프리존이 생긴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선택 가능)

응답 165개



### ③ 아로마 향기 테라피

아로마 향기를 이용하여 ‘아로마 테라피’를 할 경우 통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에 스트레스 프리존에서 아로마를 이용한 아로마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색다른 경험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④ 보드게임, 낙서 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교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Wee 클래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보드게임을 스트레스 프리존으로 옮겨 운영한다면, Wee 클래스는 상담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드게임과 더불어 간단하게 메시지를 적거나 자유롭게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⑤ 스트레스 지수 측정 혹은 자가 진단 및 Wee 클래스와의 연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지수를 직접 측정하거나 자가진단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Wee 클래스와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 전문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사실상 보드게임방으로 전락한 Wee 클래스를 이를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⑥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

이러면든 요가나 캘리그래피 등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여섯 가지 예시들은 문화상임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장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나 청소년 시설의 사정에 따라 각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채택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을 운영한다면 더욱 다채롭고 활성화된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기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및 다양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학업에만 몰두하던 삭막한 기존의 학교 공간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스트레스 고위험군 선별 및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높일 수 있다.

- “보편적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Wee 클래스나 지역의 정신건강 지원 센터의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지만, 고위험군에 속한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보편적 청소년들은 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마저도 진입(심리적) 장벽이 높아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청소년들이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프리존은 고위험군 청소년은 물론 스트레스 초기 단계의 청소년들이 쉽게 방문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파악하고 관리·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Wee 클래스의 활성화와 진입 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b>제안자</b>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문화상임위원회
<b>참여자</b>	박소율 · 이예원 · 양규리 · 권시우 의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의 학교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고양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고양특례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스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추거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고양특례시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양특례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 및 공공시설 내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공공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는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 ④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청소년에게 필요성, 위치, 프로그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시는 학교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는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를 하고자 하는 학교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인권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내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제안																		
정책제안분야	인권																		
제안내용 요약	인구 100만을 넘어선 ‘특례’ 시에 전무한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본 정책을 제안한다.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h3>[턱없이 부족한 고양 ‘특례’ 시의 특수학교]</h3> <p><b>&lt;제안배경&gt;</b>          2021년 2월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장애 1급 학생이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위원회의 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고양시 청소년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식수준이 어느정도냐는 질문에는 57%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특수학교 증설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88%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는 65%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p> <div> <div> <p>대한민국의 장애인 인식 수준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p>응답 79개</p> <table border="1"> <caption>대한민국의 장애인 인식 수준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caption>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좋음</td> <td>10.1%</td> </tr> <tr> <td>좋은 편</td> <td>7.6%</td> </tr> <tr> <td>보통</td> <td>34.2%</td> </tr> <tr> <td>좋지 않은 편</td> <td>46.8%</td> </tr> <tr> <td>매우 좋지 않음</td> <td>1.3%</td> </tr> </tbody> </table> </div> <div> <p>특수학교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p> <p>응답 79개</p> <table border="1"> <caption>특수학교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caption>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예</td> <td>88.6% (70)</td> </tr> <tr> <td>아니오</td> <td>11.4%</td> </tr> </tbody> </table> </div> </div> <p>이를 계기로 고양시 청소년의회의 인권상임위원회는 고양시 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소외당한 이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는 고양시 내 공립특수학교 설치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p> <p><b>&lt;현황 및 문제점 인식&gt;</b>  <b>- 특수학교 수용력의 한계와 외면 받는 이들</b>          고양시 내, 특수학교는 한국 경진학교(국립), 홀트학교(사립), 명현학교(사립) 총 3곳이 있는데 매년 12명, 3학교 총 36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특수학교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를 더</p>		응답	비율	매우 좋음	10.1%	좋은 편	7.6%	보통	34.2%	좋지 않은 편	46.8%	매우 좋지 않음	1.3%	응답	비율	예	88.6% (70)	아니오	11.4%
응답	비율																		
매우 좋음	10.1%																		
좋은 편	7.6%																		
보통	34.2%																		
좋지 않은 편	46.8%																		
매우 좋지 않음	1.3%																		
응답	비율																		
예	88.6% (70)																		
아니오	11.4%																		

받을 수 없다. 일반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지만 특수학교의 한정된 정원으로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양시 내 현직 특수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홀트학교와 명현학교는 사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용 인원이 현저히 적고 각 학교에 등록비가 존재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국립 특수학교는 주로 중증장애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이라 경증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 어려움을 인터뷰했다. 2022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3,6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로 진학하는데,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폭력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sup>1)</sup> 반복되는 장애학폭, 이유 있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인 경우도 있다. 특수학급에서 근무할 교사가 부족해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16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배치 가능한 사회복지요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진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에는 “장애 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 침해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현실성 부족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로 전학 가는 것을 희망하는 비율이 늘고 있지만, 특수학교의 정원 부족으로 막연히 대기할 수밖에 없다.<sup>2)</sup> 교실 부족 심각... “특수학교 신설해야” 군산 명화학교는 정원 100명으로 개교했으나 수요 학생의 증가로 185명까지 증원하였다. 증원에 따라 33개 교실 중 20곳은 법적 기준 면적을 미달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교실이 비좁아 침대, 휠체어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했고, 실습 훈련도 어렵다. 비록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도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입학 대기자도 40명에 이른다.

더욱이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특수학생 한명 한명을 온전히 신경 쓸 수 없다. 만일,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학 전문가가 부재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발작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사고가 생긴다면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더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특수학교는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 - 특수학교 배정의 문제

정부에서는 특수학교 증설을 지양하는 동시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특수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엄연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다고 치부하고 있다. 차이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다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학교의 경우 초·중학교 때는 공통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반면, 특수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정부에서는 특수학교 증설을 지양하는 동시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으로 특수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엄연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같다고 치부하고 있다. 차이의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다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학교의 경우 초·중학교 때는 공통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반면, 특수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즉,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성원의 차이이다.

일반학교는 대다수의 일반교사와 장애가 없는 학생들이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1~2명의 특수교사와 10명 내외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주 구성원이다. 즉,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내의 활동범위에서 활동할 경우 담당 특수교육 교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부각되기 어렵다.

또한, 특수학교 배정의 권한이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수학교 배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의견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 선택하여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중증도를 보호자가 아닌 각 시도의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객관적으로 장애 중증도를 알 수 있는 '장애등급'에 따라 적절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말 뿐 실질적인 판단 근거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대상자 부모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객관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애등급이 1등급인 학생이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장애등급 3등급 학생이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 및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연쇄적인 문제다.3)

#### **- 특수학교 설립과 지역사회 인식 제고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핀란드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협력 및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인식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였으며 핀란드 교육이 다른 나라들과 차별 점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낙오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 하나로 학습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바꾸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의 진단과 평가는 복지를 제공해야 할 대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수치화된 정보만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정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를테면 같은 급수라도 장애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노력에 따라 잔존 기능을 능숙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핀란드의 통합교육은 장애 유형이나 급수가 아니라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생을 지원한다. 학습 수준에 맞는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1대 1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기 위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고 해서 학습 방법과 수준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검사와 상담을 거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교육관으로 접근한다. 핀란드에서는 심리상담사, 의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학생을 만나거나 요청에 따라 담당자를 중심으로 면담을 갖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력이 별도의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 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나타난 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학교의 기능을 지식의 전달과 상급 학교로의 진학, 즉 학업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핀란드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성을 위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단순히 인력의 구성을 본받는 것을 넘어 학교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지 먼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인식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특수학교를 지역에 설립한다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대다수는 집값을 하락시키는 '위해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민의식, 즉 인식의 전환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적 법안이 실질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대도시이다. 이에 특례시로 승급하였다. 더 이상 시가 아닌 특례시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고양‘특례’시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교실이, 학교가 매우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양‘특례’시의 일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없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다원적 융합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길 바라며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는 고양‘특례’시 내 공립 특수학교 설치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1. 공립 특수학교 설립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위의 제안배경에서도 제시하였듯, 현재 고양시에는 3개의 특수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수학교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감당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립 특수학교가 가지는 이점은 분명하다.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지방 자치로 운영하는 것이며 입학 경쟁률이 국립과 사립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반면 국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저렴하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다. 사립 학교의 경우 학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립/사립/공립의 학교 유형 중 공립 특수학교를 증설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 1-1. 특수학교 설립 위원회 설치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청회 및 공론장 형성을 통해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식시키고 설립에 주민들이 적극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가칭) ‘특수학교 설립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러한 특수학교 설립 위원회는 특수학교가 설립되기까지 항시 필수적인 요소로 존재해 왔다. 서진학교,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 논의가 시작하기 전 주민들의 반대가 존재했기에 상호간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존재한다.

서진학교와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설립 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 1-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과정에 보호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과정에 각 지자체의 교육장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각 시, 도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지만,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가장 밀접하게 특수교육대상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입장이 미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객관화된 수치인 장애등급 및 지원 서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을 확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 보호자의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정 절차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1-3. 통학버스 지원 방안

특수학교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립 특수학교 설치 이후에도 시 내부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 통학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UN이 제시한 SDGs를 이행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차후 사회로 진출 시 적응에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 특수학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할 수 있다.

1) 반복되는 장애학폭, 이우 있었다. KNN 부산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8WuzZChmsg>

2) 교실 부족 심각... “특수학교 신설해야” JTV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XXmGnPmt8s>

3) 특수학교 탈락한 장애1급 아들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2915&ref=A>

## 고양특례시 내 공립 특수학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인권상임위원회
참여자	안민서 · 박지수 · 김가영 의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양시 내 공립 특수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 ① 고양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의 설치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립 특수학교 배치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공립 특수학교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청 공립 특수학교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공립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공립 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립 특수학교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립 특수학교의 설치기준)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교실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 통학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되는 지역은 공립 특수학교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 ① 교육감은 공립 특수학교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근거 확립에 관한 노력)

- ①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개선안을 수렴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특수교육 전문가·교육감들이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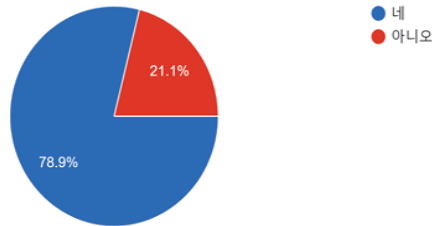
##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교육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청소년 법·경제 축제 지원 및 개최에 관한 제안
정책제안분야	교육
제안내용 요약	청소년에게 축제라는 친근한 접근방식을 통해 경제관념과 법 개념을 일깨우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p><b>법? 경제? 우리는 정말로 즐기면서 배우고 싶어요.</b></p> <p>&lt;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gt;</p> <p>지금 청소년들은 한창 유행 중인 유명한 주식, 가상화폐만 알고 있을 뿐 자신의 필수적 경제지식인 세금 납부나 금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주식과 가상화폐가 유행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고 있는 실정이다.</p> <p>실제로 SBS뉴스 채널에서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천만 원 넘게 번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수익을 낸 성공사례를 SNS에 다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본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나보다 어린 아이도 수익을 냈다고? 그럼 나도 가능할지도?’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손대어 오히려 많은 손해만 볼까봐 우려가 크다.</p> <p>국산 암호 화폐 ‘루나 사태’로 루나 투자자인 이모(33)씨는 전재산인 3,200만원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루나 사태 말고도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여대생, 정년퇴직금으로 주식하다가 80% 이상 잃은 사람 등 다양했다.</p> <p>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마당에 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받는 이론적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않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 내 거주 중인 초·중·고 청소년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4.1%가 이것에 동의했다.</p> <p>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인 교육조차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법, 경제에 대하여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와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p>	

퇴고자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법, 경제 축제를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이것이 축제로 개최된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다는 학생들이 조사에 따르면 79.1%였다.  
그만큼 청소년들은 배움과 축제에 대한 열망이 크다.

Q3-1. 위 항목에서 답변한 분야의 축제가 개최된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응답 223개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우리가 제안하는 축제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 법 -

#### 1. 열심히 일한 당신, 아르바이트 비용 제대로 받자!

대부분의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계약서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처음 접할 경우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서 등 여러 가지 계약서를 보는 법을 간단한 교육을 한 뒤 자신이 직접 올바른 계약서를 판단해서 피해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한다.

#### 2. 법이 뭐죠? 먹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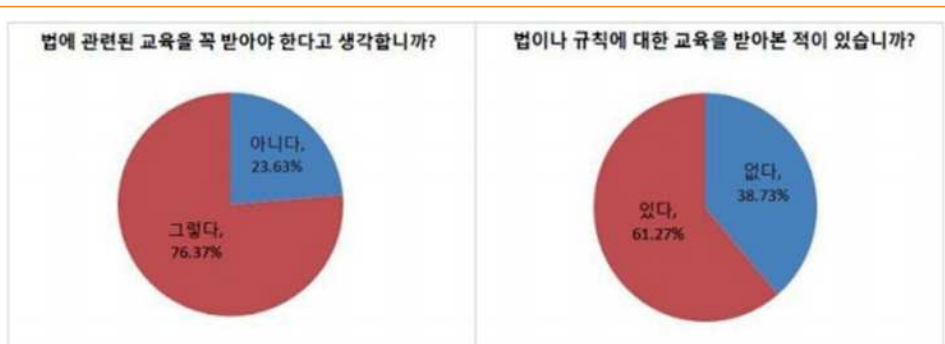
법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는 한 편, 법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단어의 무거움과 막연히 알고자 하면 재미도 없을뿐더러 지루해서 힘들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흥미가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직접 와 닿는 법에 대한 리스트를 준 다음 스피드 퀴즈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다가가기 쉽지 않은 법 내용을 게임의 형식으로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법에 대한 무거움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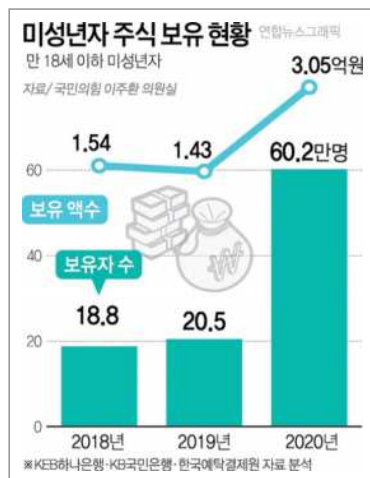
법률저널 2014.07.15. 11:03 이성진 기자

### 3. 어떤 법을 만들어볼까?

지금 우리가 정책제안을 위해서 제안서와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함께 토론하고, 토론을 통하여 다듬어진 법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완성하는 형태의 활동을 통해 법이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생활에서도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 - 경제 -

##### 1. 모의투자를 해볼까?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 역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다면 주식투자를 '로또'라고 답한 뉴스 사례와 같이 개념을 오인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상식을 기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모의투자 부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모의투자 부스에서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간단한 용어들과 매도, 매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기본 자금을 증정한다.

이후 다양하게 올라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종목을 골라 투자를 진행하며 수익을 얻거나 원금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주식투자에 대한 감을 기르고 투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가상화폐는 주식투자에만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을 구매하며 적절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도 있다.

##### 2. 부동산 투기!!!! 투자!!!

부동산 투기, 부동산 주식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기는 시세 변동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이다. 또한 요즘 부동산 투기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 계획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투기했던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잘못된 문제점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알려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부스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숙지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등을 배우고 힌트를 통해 직접 투자를 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체 주택 매수건 대비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건수)**

계약연도	미성년자 매수건수	미성년자 매수(비중)	전체 매수건수
2018	474	0.06%	753,162
2019	460	0.06%	760,336
2020	873	0.08%	1,102,753
2021	1,451	0.17%	866,757
2022 (1.1~7.31)	570	0.18%	323,739

\* 물건단위, 미성년자가 2인 이상이며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1건으로 집계하였음

※ 자료 : 국토교통부

### 3. 경제에 도전!!

현재 실제 상황과 맞물린 문제를 맞히는 도전 골든벨이다. 비트코인, 투자, 물가상승 위기, 부동산 투기 등 배웠던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고 1등, 2등, 3등을 추려낸 뒤 선물을 증정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 경제를 얼마만큼 배웠나 알 수 있다.

#### 기대효과

축제 체험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과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만약 자신이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를 통해 법과 경제를 모름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줄 일 수 있다.

4) sbs뉴스 초등학교생이 주식으로 천 만 원 넘게 번 비결 <https://m.youtube.com/watch?v=LTKLzCE5s2I>

5) PD수첩 대박의 덫, 작정에 우는 개미 투자자들 <https://m.youtube.com/watch?v=oBp00UjtSu0>,

6) 비트코인으로 전재산 잃은 21살 여대생 <https://m.youtube.com/watch?v=gmxROyEb-KY>

## 고양특례시 법·경제 청소년 축제 지원 및 개최에 관한 조례(안)

<b>제안자</b>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b>참여자</b>	이기윤 · 임도연 · 조해원 · 정하윤 · 이승욱 의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법·경제 축제의 지원 및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양특례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법·경제 축제’란 고양특례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청소년 대상으로 법, 경제 등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법, 경제와 관련없는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책무)

① 고양특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법·경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청소년 법·경제 축제의 지원·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의 평가)

- ① 청소년 법·경제 축제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안전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제안
정책제안분야	안전
제안내용 요약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고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만든다.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정하여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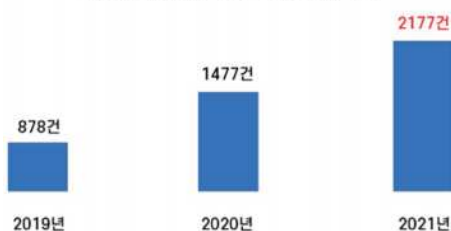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 우리의 길거리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우리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가 편리하고 빠른 장치로 여겨져 전동킥보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기기를 잠금 해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간단하다. 이러한 간단한 사용법이 청소년들의 불법적인 전동킥보드 사용률을 더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안전은 어떠한가?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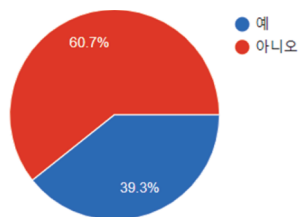
### <삼성화재, 전동 킥보드 사고 접수 건수>



출처: 삼성교통안전문답연구소, 전동 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처벌 조항들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39개



편리하고 조작이 쉬움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간조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손해 보험사 삼성화재에 신고 및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1)

이데일리의 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하루 평균 1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2022년의 경우 7월까지 관련 사고로 다친 환자는 3,578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2020년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해 사망자도 꾸준히 늘었는데 관련 사망자는 2020년 10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이 많은 연령대가 10~20대라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2)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전동킥보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이동 수단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통계 치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현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양시에도 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지금의 조례로는 우리 청소년 및 고양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고양시 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239명 중 60.7%, 145명의 청소년들이 현재 법률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현재 고양시에 존재하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보다 보완하여 관련 사고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전동킥보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부분이다.

#### 1. 법률 위반시 범칙금 추가 부과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타는 청소년들은 범칙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회는 생각한다. 이에 범칙금을 더 부과하고,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단속해야 한다.

실제로 온라인 매체에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전동킥보드의 범칙금 추가 부과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여럿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범칙금이 적어 추가부과에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전동킥보드의 범칙금을 높이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더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3)

지난 설문조사 내용에서 '전동킥보드 법률 강화내용' 부분을 응답한 151명 중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위법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높이자고 의견을 내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위법 사용 시 범칙금의 상향 조정을 제안한다.

#### 전동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 (5월13일 시행)

구분	개정 도로교통법
보도통행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무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만원(보호자)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회 단속 시 기존 범칙금을 그대로 부과한다.

-> 2회 단속 시 기존 범칙금의 두 배를 부과한다.

-> 3회 단속 시 기존 범칙금의 세 배를 부과한다.

... 위법 신고 대상이 된 경우마다 범칙금의 n배를 지불해야 한다.

최대 범칙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고의 심각도에 따른 법의 기준에 맞춰 범칙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서들 간에 위법 대상 데이터들을 공유하며 누적제로 시행되어야 개개인들의 사용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전동킥보드 사용 위법을 발견하여도 번호판이 없는 까닭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동킥보드에도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이 고유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제안한다.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38명의 청소년 중 87%, 207명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에 동의를 표했다. 그에 따른 주된 이유로는 ‘위법을 한 사람을 더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2 전동킥보드 위법 사례 신고를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동킥보드 민원건수는 2016년에는 290건, 2017년에는 491건, 2018년에는 511건 등 서서히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에는 1,927건, 2020년 7월까지 1,951건까지 급증했다.

이는 곧 전동킥보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전동킥보드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경찰관들이 이 전동킥보드 단속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일반 시민들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 인식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이고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시장은 줄게 된다. 그 결과로는 시민들이 빠르고 간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킨다면 사고는 줄고 시민들도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간편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현 상황이 지속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아서 사고율이 높아질수록 법률은 급진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전동킥보드 시장은 줄게 된다. 그 결과로는 시민들이 빠르고 간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킨다면 사고는 줄고 시민들도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을 설치하기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착되는 번호판의 형식보다는, 굴곡이 있는 면에도 잘 붙는 스티커 형식이나 작은 형태의 번호판을 만들어 컨트롤러(전동킥보드 발판 옆면)가 있는 좌우 면에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처럼 그 전동킥보드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옆에 바코드부착, QR코드 부착 등이 있다.

### 3.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확대

현재 법률에서는 아파트 근처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스쿨존, 즉 학교 앞 200m 이내에는 전동킥보드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가능 위치를 스쿨존으로부터 분리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억제하고, 관심을 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동킥보드 주차 강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전동킥보드 주차금지의 효과성을 물었다. 238명의 청소년 중 스쿨존에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청소년은 70.6%로 168명이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앞에 주차를 금지 한다면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에 관한 관심을 억제해 사고 예방을 한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스쿨존 주변에 주차된 킥보드는 대부분 인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결국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유발하기도 한다. 춘천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인도 통행 방해주차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sup>5)</sup>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킥보드 주차에 대한 민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리 고양시도 업체가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현재 법률로 정한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 설비 등·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로부터 5m 이내.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차로나 특수 안전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교육 시설 입구 혹은 주변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청소년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 주차를 한다면, 신고 제도를 통한 강제 견인으로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한다. 이러한 방식은 업체들의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어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업체들이 스스로 관련 문제를 보완하려는 부수적인 효과도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업체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과 반납 절차 등은 모두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에 지자체와 업체가 간담회를 통해 일일이 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률로 통일하여 업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주변은 전동 킥보드가 즐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던 학생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청소년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흥미가 자연스레 감소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스쿨존을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전동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학교 앞을 만들고 싶다.

#### 기대효과

-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전에 미약했던 법률을 강화할 수 있다. 강화된 법률로 인하여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 법률을 준수하려는 계기가 되어 작용할 것이다.
- 또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전동 킥보드의 사고 또한 감소할 것이다.



- 범칙금 강화가 시행된다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다. 누적제로 시행하여 재발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큰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다.
-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 되어 고유번호를 부착한다면 신고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도 강화 되어 사고도 줄고 전동킥보드 위법자의 신원파악도 간편해 신고자와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쿨존 주차 금지로 인해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등하교 시간과 학원 등원 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되었으니 안전한 등하교와 등원 길이 될 것이다.

1)주간조선, 전동 킥보드 사고 2.5배 급증...삼성화재 "최고 속도 낮춰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27/37U77556MJH6FAPXPQIW7YTSM4](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27/37U77556MJH6FAPXPQIW7YTSM4)

2)이데일리, 전동킥보드 사고로 일평균 17명 응급실행...10·20대 가장 많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16086632490624&mediaCodeNo=257&OutLnkChk=Y>

3)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https://m.blog.naver.com/guswls2208/222349190850>

<https://m.blog.naver.com/gangdongpr/222358315346>

4)노컷뉴스, '킥러니'를 아시나요? 안전위협하는 전동킥보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29152>

5)조선사람들, 전동킥보드 통행 불편 민원,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3013>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b>제안자</b>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b>참여자</b>	박채아 · 박성우 · 이예령 의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4.29.]

### 제3조(책무)

-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촉제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교육)

-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개정 2022.4.29.>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고양시에서 조성한 자전거 거치구역 일부를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② 시장은 스쿨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금지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억제하고,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 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시장은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 등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전동킥보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으로 이용했을 경우, 따로 규칙을 정하여 범칙금을 더 부과하도록 한다.

### 제11조(번호판 부착 의무화)

대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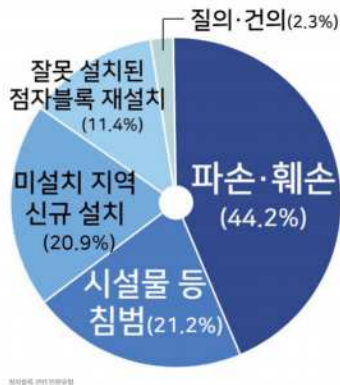
## 제5대 고양특례시청소년의회 정책제안서(안전상임위원회)

정책제안주제	고양특례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안 (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의 필요성)																								
정책제안분야	안전																								
제안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문제 해결을 위해 매립지 형식 수정, 자전거 도로 및 더 확대된 구역에 설치, 장애물 주위 설치를 제안함.</li> <li>- 블라드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드 제작 재료 고안,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나 단체 구축, 교통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 지원을 제안함.</li> <li>- 정책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제고함.</li> </ul>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등																									
<h3>우리의 길거리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h3> <p><b>&lt;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gt;</b></p> <p>우리는 주변의 보행거리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 장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블라드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의 훼손이나 설치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제안한다.</p> <p>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와 횡단보도에 블라드 설치가 미흡하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훼손 규제를 강화하거나 블라드 설치 정책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고양특례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논의되었던 내용을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다음 설문 내용은 고양시 거주 중인 청소년 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다. 고양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을 역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과 블라드의 설치 및 보수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p>응답 47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그렇다</td> <td>8.5%</td> </tr> <tr> <td>그렇다</td> <td>25.5%</td> </tr> <tr> <td>보통이다</td> <td>31.9%</td> </tr> <tr> <td>그렇지 않다</td> <td>25.5%</td> </t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8.5%</td> </tr> </tbody> </table>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8.5%	그렇다	25.5%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	25.5%	전혀 그렇지 않다	8.5%	<p>현재 설치된 유도블록이 본 용도에 맞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p>응답 47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매우 그렇다</td> <td>10.6%</td> </tr> <tr> <td>그렇다</td> <td>19.1%</td> </tr> <tr> <td>보통이다</td> <td>45.9%</td> </tr> <tr> <td>그렇지 않다</td> <td>18.1%</td> </tr> <tr> <td>전혀 그렇지 않다</td> <td>5.3%</td> </tr> </tbody> </table>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0.6%	그렇다	19.1%	보통이다	45.9%	그렇지 않다	18.1%	전혀 그렇지 않다	5.3%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8.5%																								
그렇다	25.5%																								
보통이다	31.9%																								
그렇지 않다	25.5%																								
전혀 그렇지 않다	8.5%																								
응답	비율																								
매우 그렇다	10.6%																								
그렇다	19.1%																								
보통이다	45.9%																								
그렇지 않다	18.1%																								
전혀 그렇지 않다	5.3%																								
<p>현재 설치된 유도블록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p> <p>응답 47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네</td> <td>38.3%</td> </tr> <tr> <td>아니요</td> <td>61.7%</td> </tr> </tbody> </table>	응답	비율	네	38.3%	아니요	61.7%	<p>본인이 주로 다니는 길에서 훼손된 블라드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p> <p>응답 47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자주 보았다</td> <td>21.3%</td> </tr> <tr> <td>가끔 보았다</td> <td>42.8%</td> </tr> <tr> <td>본 적이 없다</td> <td>35.2%</td> </tr> </tbody> </table>	응답	비율	자주 보았다	21.3%	가끔 보았다	42.8%	본 적이 없다	35.2%										
응답	비율																								
네	38.3%																								
아니요	61.7%																								
응답	비율																								
자주 보았다	21.3%																								
가끔 보았다	42.8%																								
본 적이 없다	35.2%																								

조사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에서 2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거리에 설치된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인구가 적어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가 미흡한 것이라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닌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구수로는 25만 명당 2,324명이고 백분율로는 0.489%이다. 이는 약 200명당 1명꼴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미루어볼 때 우리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안전장치지만 이러한 문제가 안일하게 여겨지고, 해결을 위한 제도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책을 제안한다.



## 정책(또는 프로그램/사업) 제안내용

###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와 보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에 관해 세 가지 세부 정책을 제안한다.

#### 1. 유도블록 설치체계 수정

보수의 측면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매립지 형식으로 설치되어 훼손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수리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훼손된 유도블록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도블록의 설치체계를 수정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유도블록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되 훼손 시에 즉각적인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구조나 방법을 수정할 정책을 제안한다.

#### 2. 유도블록 필요 지점 재조사 및 안전한 형태로의 설치

설치의 측면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자전거 도로 옆길이나 인도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필요한 지점을 조사해서 다양한 형태로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다. 유도블록을 설치하기 어려운 거리지만 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기 위해 형태나 재료를 고안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3. 장애물 주위에 유도블록 설치

마지막은 장애물 주위에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다. 장애물이라고 하면 자동차 속력 저감을 위한 장치나 인도에 설치된 여러 공공재를 예로 들 수 있다. 원칙은 유도블록이 장애물 주위를 둘러싸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드물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물 주위 유도블록의 현황을 조사하고 설치 및 보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볼라드의 설치와 보수]

볼라드 설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정책을 제안한다.

#### 1. 관련 사업 조성 후 효율적인 재료로 생산해 설치 (비용 절감)

볼라드 설치나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싼 가격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라드의 대부분은 국가 보안 기관에서 사용하는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볼라드인 경우가 많고, 최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로 쓰일 볼라드는 충분히 다른 일반 교통 시설들과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리의 훼손된 볼라드를 수리하거나 볼라드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경우에 일반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조성하고, 가격과 용도를 고려해 더 효율적인 재료로 만들어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2. 필요 구역 확인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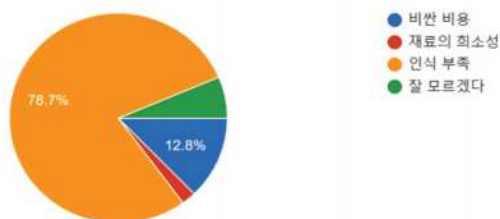
다음으로, 볼라드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거나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에는 유독 훼손된 볼라드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아직 교통 장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훼손된 시설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그 위험은 배가 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노출되면 일반 성인보다 피해가 큰 청소년의 경우 교통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보행도로의 교통 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역별로 볼라드의 상태 점검과 필요 설치 구역을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3. 시민 참여 제도 지원 확대

마지막으로, 교통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수 및 설치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교통 시설의 중요성이나 일상적으로 여겨왔던 불편 사항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거나 관련 일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문제를 제고할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활성화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설문 및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고양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고양시 청소년들은 볼라드 설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의 부족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교통 시설의 문제점을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문제를 제고하는 데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통 시설들이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볼라드 설치의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4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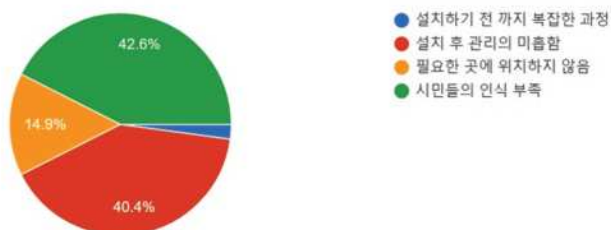


공동적으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과 볼라드 외에도 설치나 보수가 필요한 교통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설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필요한 구역은 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한 예시로 한준호 국회의원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관련 사고가 상당 수 감소한 바 있다. 우리 청소년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과 비교해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위 교통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우리 주위 교통 시설에는 훼손이나 설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관리하고 즉각적인 보수와 설치를 추진할 조직의 필요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고양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고양시 청소년들은 교통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로 관리의 중요성을 선택하였다.

**블라드를 포함해 부족하거나 훼손된 교통 시설물 문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47개



#### 기대효과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증진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을 것이고, 교통 장비의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안전상임위원회
참여자	신유정 · 이지민 의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
  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6.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지역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해야 한다.

####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

#### 제9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

- ① 시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고양시 관계공무원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 참고 자료 ’

##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양시 청소년이 교육, 문화, 안전,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또는 관내 유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양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고양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4. 고양시 청소년 관련 조례 제안 및 제정
5.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제5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② 의원 수는 3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선거를 통해 매년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청소년의회의 구성을 위해 청소년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 면접을 통해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의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제7조(의원의 임기)**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위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사퇴하거나,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제명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즉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의원의 사퇴)**

- ①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의원직 사퇴 권고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의원의 사퇴 여부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원의 징계)**

- ① 의원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징계될 수 있다.  
② 의원의 징계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상임위원회)**

- 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교육위원회 8명 이내  
3. 안전위원회 8명 이내  
4. 인권위원회 8명 이내  
5. 환경·문화위원회 8명 이내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④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 ①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와 전체회의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시장, 시의회 의장 또는 청소년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또는 시의회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청소년의회의 회의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 제14조(지원)

-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비용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 제15조(의견반영)

-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市政)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칙)**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칙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제17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년 존중 | 청소년 행복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재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즐거운 고양시

# 제5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청소년의회	<b>홈페이지</b> ▶ <a href="https://www.gcyf.or.kr/vote/">https://www.gcyf.or.kr/vote/</a> 즐겨찾기 등록 <b>facebook</b> ▶ @goyangyouthassembly
고양시청소년재단	<b>홈페이지</b> ▶ <a href="https://www.gcyf.or.kr/">https://www.gcyf.or.kr/</a> 즐겨찾기 등록 <b>facebook</b> ▶ @gcyouthf <b>YouTube</b> ▶ 고양시청소년재단 <b>KakaoTalk</b> <b>플러스친구</b> ▶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검색 후 친구추가

- |                                |                  |  |
|--------------------------------|------------------|--|
| ■ <b>발행일</b> 2022.10.29.(토)    | ■ <b>발행인</b> 고흥복 | ■ <b>연락처</b> 031-995-4160  |
| ■ <b>발행처</b> 고양시청소년재단 마두청소년수련관 | ■ <b>담당자</b> 조승일 | ■ <b>홈페이지</b> <a href="http://www.gcyf.or.kr/md/">www.gcyf.or.kr/md/</a> |